

iBT TOEFL® 및 영어논술 시험대비

Longman

Essay Writing

박광희 지음



PEARSON

Longman

‘돈 버는 영어’와 ‘돈 쓰는 영어’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영어를 다양하게 사용해 본 결과, 영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듯하다. ‘돈 버는 영어’와 ‘돈 쓰는 영어’가 그것이다. 만약 아직 영어로 이메일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돈 쓰는 영어’를 한 것이다. 반면,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설득력 있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다면 ‘돈 버는 영어’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돈 버는 영어’의 핵심은 Essay Writing Skill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올림픽 정신’으로 막연히 영어를 배우는 ‘돈 쓰는 영어’는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어 교재와 학원에 돈 퍼 주는 일은 이제 그치고, ‘메달을 기필코 따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돈 버는 영어’를 익혀 맘껏 세계를 누벼야 할 때이다.

영작문은 모방(Copy)이다!

10년 영어 공부를 하였어도 자신 있게 영어 문장 한 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작문을 잘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필자 자신의 영작문 학습 체험과 그 동안 학생들에게 영작문을 지도해 온 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비법을 발견하였다. 바로 ‘영작문은 모방(Copy)’이라는 명쾌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 작문을 잘 하려면, 평소에 좋은 영어 표현과 문장들을 철저히 이해한 후 암기해 두었다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카피, 또는 응용하여 영어 문장을 써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영작문을 잘 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한 편의 에세이를 쓰거나 영작문을 해야 하는 iBT TOEFL Writing Test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작문은 ‘아인슈타인의 물리 공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날 영작문의 이치를 깨치게 되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평소 좋은 영어 표현 및 문장을 꾸준히 외우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영작문을 할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한국적 현실에 맞는 '카피 영작문 학습법'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 1차 개정판(2판)을 거쳐 iBT TOEFL과 '영어 논술'이라는 혁명적 영어 학습 환경의 변화에 맞춰 2차 전면 개정판(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작문 교육 환경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았다. 특히, 고급 수준의 독자들을 겨냥한 에세이 영작문 교재를 출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단한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출간 직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어엿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를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한국적 교육 현실에 맞는 영작문 학습 대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영작문은 모방(Copy)이다!"라는 motto 아래 에세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과 표현들을 꾸준히 암기하여 이를 응용, 작문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카피 영작문 학습법'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 결과인 것이다.

일본에서 이 책의 일본어판(키리하라 쇼텐社)이 출간되고 중국어권에서도 이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카피 영작문 학습법'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지 않고 한자권 영작문 학습자들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카피 영작문 학습법'에 기초한 『Longman Essay Writing』

필자는 처음 이 책을 쓰기 전에 사전 준비 및 기획 단계로 국내외에서 발행된 영작문 책들을 샅샅이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 작업을 통해 나름대로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국내외에서 발행된 영작문 교재들의 상당수가 한국적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전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출간된 영작문 교재들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이론이나 문법적 측면에서 영작문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막상 제한된 시간에 한 편의 에세이를 쓰거나 영작문을 완성해야 하는 iBT TOEFL Writing Test의 경우,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이론적 접근이 아닌, TOEFL이나 '영어 논술 작문'과 같은 실제 시험 상황을 염두에 둔, 다분히 실용적인 영어 작문 교재를 쓰기로 결심하고, 그 방법론으로 '카피 영작문 학습법'을 실제 작문 프로세스에 맞춰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을 평소 꾸준히 학습하여 실전 감각을 키운다면, TOEFL이나 '영어 논술'과 같은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2월 박광희

LONGMAN Essay Writing

Self-Test

Writing Skill Test

I Writing Skill Test 1 I 논술형[Making an Argument]

I Writing Skill Test 2 I 찬반형[Agreeing or Disagreeing]



본격적인 영작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영작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Self-Test에 제시되는 2종류의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최종 평가한 후,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자.



Self-Test의 필요성

Self-Test를 위해 독자 여러분은 먼저 TOEFL Test에서 출제되는 에세이 토픽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학생이 작성한 5.5점 수준의 에세이 글 중 10문장을 영어로 작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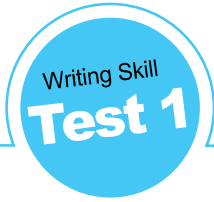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이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을 모범 답안처럼 작문하지 못하였다면, 당신의 영작문 실력은 '세계화 시대의 미아(迷兒)' 상태이다. 5~7개를 작문하였다면 iBT TOEFL과 '영어 논술' 시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8개 이상을 정확히 작문하였다면 머지않아 영어가 제2외국어가 될 'ESL 시대'의 글로벌 인재가 될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혹시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5.0점 수준의 TOEFL 에세이 글 중 10문장을 영어로 작문해 보라. 그리고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최종 진단 평가하라.

필자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장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테스트 결과와 실제 TOEFL Essay Writing 점수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아래의 도표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독자 여러분의 영작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진단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Self-Test	→	TOEFL Essay Writing
3개		3.0점
4~5개		3.5~4.0점
6~7개		4.5점
8~9개		5.0~5.5점
10개		6.0점

※ Self-Test 시험 시간: 12분



논술형

[Making an Argument]

다음은 TOEFL 에세이 토픽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학생이 작문한 5.5점 수준의 에세이를 교정 보완한 글이다.

| Topic |

Imagine that you have received some land to use as you wish. How would you use this land? Use specific details to explain your answer.

| Essay Writing 5.5 |

Nowadays, teenagers have spaces where they can play. However, our country has few cultural facilities or playgrounds for teenagers. ❶ 그러므로,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땅을 조금 얻는다면, 나는 단지 10대들을 위한 문화 시설을 만들고 싶다. Thus, they can make their own culture. ❷ 많은 어른들은 10대들의 행동과 문화에 대해 염려를 한다. However, if such misconduct occurs, it would be forbidden. Therefore, adults need not be anxious about bad behavior and culture. There are some other reasons why I wish to create a cultural facility for teenagers.

❸ 첫째, 우리나라는 10대들을 위한 문화 시설들이나 놀이터들이 거의 없다. Teenagers usually go to the same places, such as a singing room(karaoke), a PC room(Internet cafe), or a billiard room(pool hall). ❹ 그 결과, 10대들은 그 곳에 가는 것을 지켜워 한다. Also, adults think that these are bad places for teenagers. Therefore, if I received some land to use as I wish, I would make a cultural facility for teenagers, and there would be no juvenile delinquents.

Likewise, teenagers can make their own culture there.

⑤ 둘째, 나는 그 곳을 즐거움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⑥ 그러면,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 10대들이 원하는 만큼 독서를 할 수 있다. ⑦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감정과 사회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However, these days, teenagers have not read many books. By going to a cultural facility, they can form the habit of reading books. Therefore, I would make a reading place within the cultural facility.

⑧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 시설은 10대들의 사회 성장과 인간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⑨ 그들은 그 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귄다. Also, they can learn about human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y can learn to have concern for other people.

To sum up, our country has few cultural facilities or playgrounds for teenagers. ⑩ 그 결과, 그들은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Therefore, if I received some land to use as I wish, I would create a cultural facility for teenagers where they can make their own culture, read books, and develop socially.

Write the 10 Korean sentences below in English.

1. 그러므로,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땅을 조금 얻는다면, 나는 단지 10대들을 위한 문화 시설을 만들고 싶다.

Tip [therefore, receive, create, teenager]

2. 많은 어른들은 10대들의 행동과 문화에 대해 염려를 한다.

Tip [adult, be anxious, behavior]

3. 첫째, 우리나라는 10대들을 위한 문화 시설들이나 놀이터들이 거의 없다.

Tip [first, have, few, playground]

4. 그 결과, 10대들은 그 곳에 가는 것을 지겨워 한다.

Tip [as a result, become sick]

5. 둘째, 나는 그 곳을 즐거움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Tip [second, would, make, not only ~ but also..., pleasure, read]

6. 그러면,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 10대들이 원하는 만큼 독서를 할 수 있다.

Tip [then, who, read, as much as]

7.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감정과 사회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Tip [reading, necessary, develop, emotion, skill]

8.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 시설은 10대들의 사회 성장과 인간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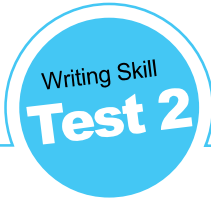
Tip [finally, have a good effect, development, relationship]

9. 그들은 그 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Tip [make friends]

10. 그 결과, 그들은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Tip [consequently, no, pleasure, satisfaction]



찬반형

[Agreeing or Disagreeing]

다음은 TOEFL 에세이 토픽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학생이 작문한 5.0점 수준의 에세이 작문을 교정 보완한 글이다.

| Topic |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arents are the best teachers.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 Essay Writing 5.0 |

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매일 배워야 한다. The whole world is changing more quickly than ever before. ② 일부 학자들은 인간들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지식의 양이 매 1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③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부모들이 아닌 전문 직업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Professionals have experience in teaching and also have the latest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to get on our own.

Parents can help us in our lives. However, they can't teach us about mathematics or science because they are not used to teaching such subjects. ④ 전문 직업인들은 학생들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쳐 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기술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 ⑥ 또한, 전문 직업인들은 학습에 대한 더 좋은 방법들과 시험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다. The value of this information is priceless.

⑦ 우리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As professionals teach many students, they know what materials to use for a student's ability. The best teachers or professionals can teach the students at their level of ability.

Professionals can teach students better than parents because they teach many students.

⑧ 학생들은 가르쳐 본 경험이 풍부하고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쉽다. ⑨ 전문 직업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좋다. Students can learn more quickly than studying on their own, and ⑩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For these reasons, I think we should learn from professionals and not from parents.

Write the 10 Korean sentences below in English.

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매일 배워야 한다.

Tip [have to, survive, world]

2. 일부 학자들은 인간들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지식의 양이 매 1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Tip [scholar, say, amount, by humans, double, every 10 years]

3.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부모들이 아닌 전문 직업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Tip [way, efficiently, by -ing, from professionals]

4. 전문 직업인들은 학생들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Tip [people who]

5.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쳐 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기술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

Tip [have one's own, how to, effectively, based on, experience]

6. 또한, 전문 직업인들은 학습에 대한 더 좋은 방법들과 시험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다.

Tip [also, method, studying, best, exam]

7. 우리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Tip [what, handle]

8. 학생들은 가르쳐 본 경험이 풍부하고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쉽다.

Tip [it is easier to..., for students, from professionals, be full of, the latest]

9. 전문 직업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좋다.

Tip [learning, be good for, both ~ and...]

10.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Tip [do not have to, relearn]

LONGMAN Essay Writing

Pre-Step
**Study,
'Writing X-File'**

- I Part 1 | What Is Essay Writing?
- I Part 2 | The Essentials of Clause, Sentence & Paragraph
- I Part 3 | 10 English Writing Principles
- I Part 4 | How to Find & Use English Dictionaries for Writing



본격적인 TOEFL 영작문 및 영어 논술 작문의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세이 영작문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자.

이에 Pre-Step. Study 'Writing X-File'에서는 '에세이 영작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영작문을 위한 요령 및 사전 활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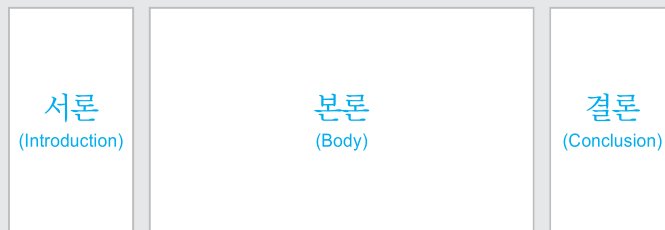
Essay Writing의 기초 다지기

필자가 영국에서 공부를 막 시작하던 '애송이 유학생' 시절의 일이다. 하루는 국제 금융학 강의가 끝날 무렵 영국인 교수님께서 칠판에 무엇인가 적더니,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essay를 작성해 2주 후에 제출하세요!”라는 것이었다.(※ 유럽이나 미국의 통역 및 번역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지 외국어만 가르치지 않는다. 외국어 교육은 기본이고, Business, Finance, Technology, Biology 등 전문 분야의 교육도 아울러 일정 수준까지 병행한다. 그래야만 졸업 후 특정 분야의 전문 통역사나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필자의 머리 속엔 ‘웬 essay?’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그 때까지 필자가 알고 있던 essay란 단어는 오로지 ‘수필’이란 뜻이었는데, 국제 금융학이란 과목과 수필은 웬지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온 옆자리의 동료 학생에게 essay의 정확한 뜻을 물어보았더니, essay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하는 ‘리포트’(Report)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에세이 영작문이란 마치 리포트를 작성하듯 기본적 글의 틀을 갖추어 작성하는 논리적 영어 작문을 가리킨다. 여기서 기본적 글의 틀이란 논리적 작문의 기본 3요소인 서론(introduction), 본문(body), 결론(conclusion) 부분을 뜻한다. 즉, 에세이 영작문이란 서론, 본문, 결론으로 이루어진 영어 논술 작문을 의미한다.

에세이 영작문(Essay Writing)의 기본 구성도



그럼 지금부터는 에세이 영작문을 구성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인 서론, 본문, 결론의 개념 및 효과적 작성법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서론 [Introduction]

서론은 에세이의 첫 머리를 이루는 글의 도입부를 가리킨다.

구성적 측면에서 서론은 두 부분, 즉 ‘일반 서술부’ (General Statements)와 ‘논제 서술부’ (Thesis Statements)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일반 서술부란 에세이를 읽을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고, 논제 서술부는 에세이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를 실제 작문 테크닉과 연결해 살펴보면, 에세이 제목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든지 에세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진진한 스토리나 배경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일반 서술부에 속하는 작문 테크닉이다. 한편 에세이의 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인 논리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것은 논제 서술부의 작문 테크닉에 해당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일반 서술부와 논제 서술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들을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일반 서술부에서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

첫째, 에세이 제목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둘째, 에세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있는 배경 사실이나 정보, 통계를 인용한다.

셋째, 에세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개인 일화나 이야기를 소개한다.

넷째, 에세이 주제와 관련해 권위있는 전문가의 발언이나 언론 기사 등을 인용, 소개한다.

논제 서술부에서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

첫째, 작성할 에세이의 주제 또는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둘째, 에세이에서 다룰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밝혀둔다.

셋째, 작성할 에세이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언급한다.

넷째, 에세이 주제와 관련해 하나 또는 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본론에 논술한다.

이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일반 서술부에서 논제 서술부로 갈수록 작문 내용이 보다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치적 측면에서 일반 서술부를 먼저, 그 다음에 논제 서술부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일반 서술부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결코 논제 서술부를 생략할 수는 없다. 서론의 논제 서술부는 에세이의 전체 구성 및 논리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서론의 작문 여부는 에세이 영작문의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예컨대, 서론 부분에서 작문이 술술 풀려나가면 영작문 자체가 웬지 수월해지지만, 서론 부분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에세이 영작문이 엉망이 되곤 한다. 이 때, 평소 일반 서술부와 논제 서술부에서 각각 쓰이는 위의 작문 테크닉들을 익혀 둔다면, 작문의 실마리가 스르르 풀릴 것이다.

서론(Introduction) 작문의 실례

Changes in the 20th century

Any person who has lived in the twentieth century has seen a lot of changes taken place in almost all areas of human existence. Some people are excited by the challenges that these changes offer; others want to return to the simpler life-style of the past. The twentieth century has certain advantages such a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for many, but it also has some disadvantages such as a polluted environment, the depersonalization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e weakening of spiritual values.

(Source: *Writing Academic English* by Longman)

해 석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의 모든 인간 생활 분야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보아왔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제공하는 도전에 흥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보다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한다. 20세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같은 어떠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환경 오염, 인간 관계의 비인격화,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약화와 같은 단점들 역시 있다.

코 멘 트 위의 글은 "Changes in the 20th century"(20세기의 변화들)라는 제목의 에세이의 서론 부분으로, 전형적인 서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일반 서술부'와 '논제 서술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처음 두 문장이 제목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일반 서술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에세이에서 다룰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밝힌 논제 서술부를 이룬다. 한편, 논제 서술부의 내용으로 보아, 본론에서는 20세기의 변화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구체적으로 논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본론 [Body]

본론은 에세이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에세이의 3 구성 요소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즉, 본론은 서론의 '논제 서술부'를 구체적으로 논술하는 부분으로, 작문의 길이는 서론의 '논제 서술부'를 논술하는 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필요한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논제 서술부를 논술하는 데 그다지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본론의 길이가 1문단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만약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면 본론의 길이는 3문단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론의 길이가 아니라, 논제 서술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술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논제 서술부에 대한 논술이 미흡하면서 굳더더기 문장들을 잔뜩 덧붙여 본론의 길이만을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에세이 평가의 기준은 결코 양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본론의 작문량을 부풀릴 생각보다는, 서론의 논제 서술부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본론 작문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런데, 막상 본론 부분의 작문에 들어가면 논제 서술부의 논술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때, 만약 다음의 4가지 논술 전개 방법을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본론 작문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 아울러, 이 책 Step II의 에세이 파트별 Function(문장 틀)을 익혀두면 논술 전개 방법에서 쓰이는 구체적 문장 및 표현을 익힐 수 있다.

본론 작문시 흔히 쓰이는 4가지 논술 전개 방법

- 첫째, 시간순으로 나열해 논술하기
- 둘째, 소항목들로 분류해 논술하기
- 셋째, 원인 및 결과 또는 이유 및 효과를 예시하면서 논술하기
- 넷째, 다른 것들과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 논술하기

마지막으로, 본론 작문시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연결어의 효과적인 사용이다. 여기서 연결어란 본론을 구성하는 문단들의 첫머리에 써서 각각 앞 문단과의 논리 관계를 암시해 주는 단어를 가리킨다. 예컨대, 문단 앞부분에 **In addition**이나 **Moreover**와 같은 연결어를 썼다면, 앞 문단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서술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에세이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더라도 대충 본론의 문단들 앞 부분에 쓰인 연결어들만 훑어보면 그 에세이의 논리적 짜임새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을 작문할 때는 어떤 연결어로 문단을 시작할 것인지부터 숙고해야 한다.

3. 결론 [Conclusion]

결론은 에세이의 끝 부분에 위치하는 마무리 글이다.

구성적 측면에서 결론은 두 부분 즉 '재언급' (Restatement)과 '최종 논평' (Final Comment)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재언급이란 앞서 서론 및 본문에서 논술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고, 최종 논평은 에세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최종 의견이나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재언급과 최종 논평을 모두 포함하여 결론 부분을 작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둘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작문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방금 설명한 결론의 두 구성 요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들을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재언급에서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

첫째, 서론의 논제 서술부를 단어들만 바꿔 부연해 서술한다.

둘째, 본문의 핵심 부분을 다시 요약해 언급한다.

최종 논평에서 사용하는 작문 테크닉

첫째, 에세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밝힌다.

둘째, 앞서 논술한 문제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한다.

셋째, 추천, 권고 또는 예측을 한다.

넷째, 생각의 여지를 남기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한편, 결론 부분을 작문할 때는 항상 글의 끝맺음을 암시하는 **Finally, In conclusion** 등과 같은 결론 관련 연결어를 사용해 문단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작문을 하면 한 눈에 결론부를 갖춘 짜임새 있는 에세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채점관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결론 문단을 시작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결론 관련 연결어들이다.

결론 관련 연결어

- | | |
|---|--------------|
| ▶ In conclusion, / To conclude, / Conclusively, | 결론적으로 |
| ▶ Ultimately, | 궁극적으로 |
| ▶ Finally, / Eventually, / In the end, | 결국 |
| ▶ In brief, / In short, | 요컨대 |
| ▶ In a word, | 한마디로 |
| ▶ All in all, | 전반적으로 |
| ▶ Last but not least,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